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몬테스 와이너리 포도밭.

처음엔 '그란 레세르바'라고 불렀다. 당시 칠레 대부분의 와인들이 그랬던 스페인 와인 숙성 규정의 최상급인 '그란 레세르바'라는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창업자들의 마음엔 영 못마땅했다. 어느 와인에나 다 쓸 수 있는 평범한 이름보다는 그들만의 열정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이름을 주고 싶었다. 고심 끝에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는 '알파'를 선택했다.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말로 첫째, 처음이란 의미다. 그렇게 '몬테스 그란 레세르바'가 아닌 '몬테스 알파'가 됐다.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알파는 안다는 그 몬테스알파다.

몬테스와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넘어섰다.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독특히 해낸 셈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2003년과 2019년 한·칠레 정상회담 만찬주로 모두 몬테스가 선정됐고, 2005년 부산 APEC 만찬과 2011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칠레 국빈 방문 기념 만찬에도 몬테스가 테이블에 올랐다.

당분간은 어떤 와인도 넘보지 못할 국민와인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쉽다. 한국 사람들에게 와인이 어렵고, 복잡불편한 존재였다면 몬테스알파는 부르기, 기억하기도 너무나 쉬웠다. 마시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기껏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텅텅 마실 시거나 조건을 따져야 했지만 몬테스알파는 그런 고민없이 언제, 어떻게 먹어도 괜찮았다. 적당한 무게와 잘 짜여진 구조덕에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보여줬다. 다른 이유는 중저급이라는 칠레 와인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는 맛이다.

몬테스는 아무도 칠레가 국제 무대에서 양질의 와인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1980년대에 고품질 와인을 만들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당시 몬테스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지역, 새로운 품종, 새로운

농법에 대한 도전은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시작이 됐다.

'몬테스 폴리'는 몬테스도전의 상징과도 같은 와인이다. 몬테스가 칠레 최초로, 그것도 경사 45도의 산중턱을 깎아 시라 품종을 심었을 때 사람들이 던진 어리석다(Folly)는 조롱이 지금은 당당히 와인의 이름이 됐다.

몬테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산티아고에서 1200km 남쪽으로 떨어진 파타고니아에 포도밭을 일군 이른바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다. 서늘한 기후의 파타고니아에서는 소비용 블랑을 비롯해 리슬링, 샤도네이, 피노 그리, 피노 누아,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주로 화이트 품종을 심어 연구와 시험이 진행 중이다. 파타고니아의 테루아는 어떤 향과 맛을 담고 있을까. 첫 빈티지가 2019년, 바로 올해 나온다.

/ smahn1@metroseoul.co.kr



운 품종, 새로운



(왼쪽부터)몬테스 타이타, 몬테스 알파 엠, 몬테스 폴리, 몬테스 퍼플 앤젤, 몬테스 알파 카베네 소비뇽, 몬테스 클래식 카베네 소비뇽, 몬테스 알파 블랙라벨 카베네 소비뇽, 몬테스 리미티드 셀렉션,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몬테스 슈럽 로제, 몬테스 트윈스, 몬테스 레이트 하비스트.

롯데兔, 파트너사에 500억 금융지원

IBK기업은행과 상생펀드 조성 협약 대출금리 연간 2.45%p 자동 감면

롯데면세점이 5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은행과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왼쪽부터)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부장, 김국중 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본부장.



롯데면세점은 IBK 기업은행에 500억원을 출연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왼쪽부터)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부장, 김국중 기업은행 본부기업금융센터 본부장.

4일 롯데면세점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본사 다목적홀에서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금리 자동 감면 혜택과 신규 채용시 채용 축하금 지원을 골자로 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과 거래를 하고 있는 400여개의 중소기업사는 추후 IBK 기업은행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 실행시 연간 2.45%p의 대출금리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대 3.85%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롯데 계열사가 조성한 상생펀드를 통한 파트너사 대출 금리 감면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추천 파트너사에 한해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사들은 이를 통해 현금흐름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천만원 상당의 이자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한 파트너사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당 30만원씩 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신규 채용

축하금을 지원한다. 현금흐름 개선과 이자보전 등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해 기업, 사회와 함께 동반성장 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중소기업, 중견 브랜드 발굴 및 판로 확대를 통해 전 세계의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 지급시 어음이 아닌 100% 현금 지급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왔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부장은 "이번 500억원 상생펀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반성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쥬씨, 공식 서포터즈 '쥬스터스19' 스타트

생과일쥬스 브랜드 쥬씨가 공식 서포터즈인 '쥬스터스19'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대하는 '쥬스터스19'는 쥬씨 창사 이래 최초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공식 서포터즈다. 쥬씨는 2019년도에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리부트(Re:Boot)라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며, 이번 행사는 하위 전략실행 안중 하나인 '진짜 팬을 만든다'는 목

적화에 기획됐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쥬씨 본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10명의 '쥬스터스19' 멤버들은 이후 약 2개월간 쥬씨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다양한 쥬씨의 마케팅 실무까지 경험하게 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스스~' 데일리 눈화장에 딱... 극지성은 울면 '팬더'

트렌드 Pick!

키스미 아이라이너 '슈퍼킵'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극지성 피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땀도 문제인데, 유분도 넘쳐나서다. 공 들여한 화장이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질 때면 어금니를 꼭 깨물게 된다.

화장하는 극지성 피부들에게 좋은 아이라이너를 찾는 과정은 속명과도 같다.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라 한들, 내 얼굴의 유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좋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땀과 물도 마찬가지다. 유분 이전에 땀과 물에 우선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워터프루프 제품은 필수로 사용하게 된다.

이 모든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제품은 바로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슈퍼킵'이다. 붓펜 형태의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로, 꾸준히 선호도가 높은 제품 중 하나다.

붓펜 타입으로 매끄럽게 발려 브러쉬 얇아 선 굵기조절 용이 워터프루프기능 점수 '보통' 유분 적은 건성피부에 추천



키스미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땀, 물, 눈물, 마찰에 강해 수정 없이도 하루 종일 처음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하지만, 미온수에는 쉽게 지워져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하다고 한다.

◆눈 짙림 없다! 차에서도 '스스'

기자는 평소 펜슬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만, 붓펜 타입도 무리 없이 사용한다. 흔들리는 버스나 차 안에서 10번 중 8번은 실수 없이 그릴 수 있는 편이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다면 펜슬은 잘 부러지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고, 붓펜은



제품을 손등에 그린 후 물 묻힌 화장솜으로 지워본 결과, 지워지긴 하지만 잔여물이 다소 남는다.

눈을 찌르지 않으면서도 갈라지거나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키스미의 제품은 '통과'다. 손등에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그렸을 땐 갈라짐이 다소 있었지만, 기초화장을 한 얼굴에선 부드럽고 매끈하게 발렸다. 또, 브러쉬가 부드러우면서도 탱탱해 라인이 옆으로 튀거나 열어지는 현상이 달랐다.

브러쉬가 매우 얇다는 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에게겐 장



제품 포장재에 쓰인 '울어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김민서 기자

점이었다. 0.1mm의 초극세사로, 선의 굵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눈매를 만들기 편했다. 또, 꼬리빼기도 수월했다.

◆'울어도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이 제품의 포장재에는 "울어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그만큼 워터프루프 제품으로써 자신있다는 의미일 터. '물, 땀, 유분, 롱래스팅 UP!'이란 문구도 제품력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틀어놓고, 더위를 느낄 수 있도록 에어컨은 잠시 꺼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더위 때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슬픈 장면으로 인해 눈물이 쏟아졌다.

씨는 온도 속에서 휴지로 눈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견디는 결과를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중' 정도 되겠다. 물, 땀, 유분을 동시에 방출하고 보니 울어도 괜찮긴 하지만, 마음 놓고 울면 안되는 정도다. 살짝 지워지거나 번짐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 티 안 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극지성은 울면 안 될 것 같다. 얼굴 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종일 근무를 해보니 지워진다. 눈물까지 흘린다면 '팬더' 얼굴은 예약이다.

◆미온수로 지워보니...

미온수로도 쉽게 지워진다고 해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다. '슈퍼 블랙'과 '블랙 브라운'을 그린 뒤,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물 묻힌 화장솜으로 지워봤다. 그 결과, 두 세 번만에 지워지긴 했지만 힘을 줘서 닦아도 잔여물은 다소 남아있었다. 흐르는 물에도 마찬가지. 클렌징 워터 정도는 써줘야 깔끔히 지워진다. 용량은 0.4ml로 적은 편이다.

/김민서 기자